

다산포럼

입장(立場) 없는 정치



김 동 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며칠 전 타계한 고(故) 신영복 교수가 남긴 말 중에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의 형태”라는 말이 있다. 같은 입장을 갖는 것, 그것은 같은 철학과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함께 일하는 관계, 즉 동지(同志)라고 부르는 사이이며 주로 사회 운동이나 정치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런데 최근 야당의 분열, 특히 과거 세 정권에 몸담았다가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가거나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그 전에 어떻게 같은 당에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한국에서 정당은 입장이 동일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도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90년 3당 합당과 같은 정당정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도 있었지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무런 해명도 없이 여당으로 들어간 일도 흔하다. 정치 선진국 같으면 모두가 당장 퇴출 대상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재선·삼선의 관록을 자랑한다.

논어에 ‘군자(君子)는 화이부동(和而不和)하고 소인(小人)은 동이불화(同而不和)’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남과 어울리지만 입장과 주관을 지키고, 소인은 무리를 지어 다니지만 불화를 일삼는다는 말이다. 즉 소인은 입장보다는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므로 그들의 아첨이나 충성을 믿지 말 것이며, 군자의 주관과 소신을 무릅쓰게 여기라는 말로 들린다.

이렇게 보면 한국 정치는 언제나 입장을 가진 ‘군자’를 보기 어렵고, 이익에 따라 이리 불고 저리 불는 ‘소인’이 살아남는 구조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을 내세운 자기 편 당 대표까지 따돌리고 내치지 않았는가? 친박·진박·비박, 친노·반노, “진실한 사람·의리 있는 사람, 배신, 의리” 도대체 이게 무슨 어처구니없는 말들이며, 후진적 풍경인가? ‘입장’이 아니라 칼자루 권 권력자외의 거리감이나 충성 여부로 정치가들의 소

속이 분류되는 나라에서 무리를 이룬 집단 구성원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며, 국민은 오직 선거 때만 필요할 것이다. 신영복 식으로 다시 말하면 그것은 ‘관계의 최저 형태’ 혹은 무관계다. 그들은 오직 자기를 위해 정치한다는 말이다. 한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이번 총선 후보로 등록한 1022명 중, 기업인은 노동자의 5배나 되고, 성공한 엘리트가 전체의 55%를 차지한다고 한다. 경제 활동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나 자영업자 중에서 후보로 등록된 사람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55%의 후보자들, 명문대 졸업장 소유자와 고위관리자 전문직 경력, 그리고 몇억 원 이상의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또다시 국회의원인 될 것이다.

선거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인다. 그런데 이런 경력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인 되면 ‘입장’의 차이가 드러날까? 여·야로 갈라져 있다 한들 실제 얼마나 다를 것이며, 경제·노동·복지 사안에 대해 어떤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는가? 결국 ‘입장 없는 정치’는 ‘다른 입장이 진입할 수 없는 정치’의 결과일지 모른다. 그것은 엘리트 독재로 민주주의의 죽음이며, 민중의 항구적인 배제다. 정치가들의 다툼은 아니다. ‘입장’을 보

기보다는 자신과의 친소관계, 지역·연고를 중시해 온 한국 유권자들의 행태가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생각과 사상이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봉쇄하고, 노동운동을 불온시 한 이 불모의 분단 냉전 체제, 거대 여야의 정치 독점과 단순 다수의 선거제도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다. 정치이념의 스펙트럼 중 한쪽만 열어 놓았으니 정치나 사회에서 학벌과 출신지역이 제일 중요해지고, 무정권·무입장·복종형 인간만이 살아남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나라에서는 정당정치의 활성화나 소신과 정견을 가진 정치 리더의 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국가의 백년대계 구상은 커녕 당장 ‘헬 조선’ 극복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입장이 분명한 몇 소수 정당인 힘 있는 제3당이 되거나, 제1야당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당장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어찌할 것인가? 철학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후보자가 어떤 과거 ‘입장’을 취했는지, 그들의 경력을 보면서 그 입장이 그냥 머리에서만 나온 선거용 구호인지 ‘마음이나 발(체협)’에서 나온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화장한 얼굴과 환란한 말’에 현혹되면 평생 노예 신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춘 특·특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정 선 희
동신대 공연전시기획학과 2학년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얼마 전 지하철역을 내려가다가 우연히 벽면에 붙어 있는 이 문구 하나가 나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교복을 막 벗어던진 스무 살. 대학이라는 새로운 도전, 사회로 내딛는 첫 발을 댄 2년 전 겪었던 일이다. 초창기 대학생살은 10대 때 느꼈던 막연한 ‘로망’이나 ‘기대’와는 확연히 달랐다. 어느 순간 적성과 비전의 불일치로 인해 자신감이 하락했다. 고등학교 시절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학업경쟁은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줬다.

2년 전, 나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현실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대학생이 겪는 공통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늘 계속되는 끊임없는 경쟁.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요소들, 그리고 비전에 대한 불확실함과 불안감이 가져오는 자존감 상실.

나 또한 피해갈 수 없었던 이런 불행 속에서 나를 구원해준 것은 우연히 발견한 저 문구 하나였다. 때면 지나다니는 길에도 무심코 지나쳐왔던 곳에서 문득 눈에 띄던 문구 하나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계기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거나, 또는 새로운 꿈을 발견하기도 한다. 나에게 해답을 가져다준 저 문구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사소한 말 한마디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반대로 나에게 사소한 그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뒤바꿀 엄청난 키포인트(key point)가 될 수도 있다. 나는 22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 깊숙이 담아왔다. 이런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이미 수차례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라는 저 문구가 눈에 들어온 뒤, 내 생각과 행동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는 미리 겁부터 먹어서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또 그 기회를 통해 경험과 교훈을 얻었으며, 그 경험 속에서는 자연스레 좋은 인연들이 쌓였다.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된 ‘응답하라 1988’에서 나온 한 대사가 생각난다.

“은명은, 타이밍은, 그저 찾아드는 우연이 아니다. 간절함을 향한 순탄한 선택들

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다. 주저 없는 포기와 망설임 없는 결정들이 타이밍을 만든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한 그 문구 하나. 어쩌면 저 대사처럼, 비전에 대한 내 간절함이 만들어 낸 기적 같은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다. 그리고 그 젊음은, 무모할지도 모를 용기와, 수없이 많은 운명과, 기막힌 타이밍,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과거의 나처럼, 중요한 선택 앞에서 늦었다는 핑계로 망설이고 있을 많은 청춘들에게 조언해 주고 싶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당신 눈앞에 놓인 그 기회가 당신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지도 모른다. 조금만 더 용기를 가져라. 오늘이 바로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다!

기 고

출산 장려 문화 확산시키자



김 명 권
광주시 서구보건소장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나와 잘 기르자!”라는 구호는 지금부터 약 30여년 전 국가적으로 내걸었던 대표적인 표어였다. 아마 50세를 넘기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이 구호는 이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로 바뀌었다. 산아제한과 함께 남아선호 사상을 갖지 않도록 계몽을 꽤 했던 것 같다.

당시 우리나라는 가족계획을 법국가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짧은 기간 내 성공적인 가족계획을 이뤘던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1990년 무렵부터는 어린이 성비가 점차 차이를 보이면서 남성들이 결혼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은 결국 남아를 선호하게 되었던 때보다 딸을 둔 집안이 오히려 유리해진 것 같다. 어디, 아들이든 딸이든 귀하지 않은 집이 있었는가. 문제는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이유로 떠오르고 있는 게 현실임을 감안, 앞으로 출산문화는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세 계적으로 가족계획을 단기간에 성공시킨 국가 중에서도 으뜸인 반면,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는 정말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 심히 격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근래에 와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사회·경제적인 패턴까지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고 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출산 친화적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출산휴가제와 육아휴직제,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돋보인다. 맞벌이를

피할 수 없는 현대 직장인들이자 ‘워킹맘’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다.

또한, 혼인 후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임신이 어려운 경우 지원해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사업과 함께 서구보건소의 한방 난임극복사업도 참여자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피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은 물론,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해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멀지 않아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출산하고 육아하는 데 들어가게 되는 비용 모두를 정부에서

지원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는 비단, 정부만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그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과 출산이 가치있고 의미 있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을 보다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출산장려 문화는 우리의 미래를 밝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임을 다 같이 공감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결혼적령기의 많은 청춘남녀들은 결코 혼인을 미루거나 늦추지 않도록, 결혼과 출산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진정으로 느꼈으면 좋겠다.

임신과 출산은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은 정말 확실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출산장려 문화는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社 說

다시 멩치는야권, 끝내는 통합만이 살 길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 의가 어제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안 의원과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합의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한상진·윤여준 공동창조위원장과 김한길 의원도 참석했다. 당명은 ‘국민의당’을 쓰기로 했다.

이에 앞서 바로 전날에는 장당에 나 서고 있는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과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이 통합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합 당명은 ‘민주당’이다.

이로써 야권 신당의 큰 줄기가 점차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시퇴 등으로 잠시 주춤거리던 국민의당은 더욱 더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천정배 의원의 가세로 원내교섭단체 구성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안 의원과 천 의원은 이번 통합 합의 문서에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총선 압승 저지’를 통합 취지로 적시했다고 한다. 이들은 또 “합리적인 중도개혁

인사의 참여 및 신당추진 인사들과의 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고 밝혔다. 당연한 말이다. 다가오는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갈래로 갈라선 야권이 모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호남 정치 세력의 분열은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쳐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때 야직 완전하진 않지만 야권 신당의 통합 소식은 분열을 우려하는 많은 호남 유권자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돌려주는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이제 갈수록 세를 불러 가고 있는 국민의당과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한반 싸움이 불만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 역시 끝내는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총선 시일이 촉박하다면 수도권 연대만이라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누누이 강조하던 말이 있다. “함께 가라. 나눠지면 안 된다. 자기 것을 때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과거의 감정을 잊고 모든 야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또 창작스튜디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식 개관한 이후 작가들의 공동 작업실 및 거주 공간으로 쓰려던 아시아창작스튜디오가 두 달째 개점휴업 상태라고 한다. 문화전당 측과 광주에총이 벌이고 있는 주도권 다툼 탓이다.

스튜디오는 광주 서구 농성동 옛 서구청사를 리모델링한 3층 건물로 작업실 35개와 게스트 하우스 그리고 전시실과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다. 아시아 각국 작가들이 이곳에 거주하며 창작의 산실로 활용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만들어졌다. 옛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국비 130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으며 광주에총과 산하 협회 사무실도 입주해 있다.

스튜디오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다. 문화전당은 국비가 들어간 만큼 독자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예총 등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경쟁입찰을 내

세우고 있다. 반면 광주에총은 처음부터 스튜디오 설치에 적극 참여했으며 전당 측이 위탁 운영을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예산 확보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고 스튜디오의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서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처럼 서로 맞서는 바람에 창작스튜디오의 주인 격인 작가들은 동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처지가 됐다. 문화행정기관으로서 작가들을 적극 응원하지는 못 할 행정 창작 활동을 위촉시켜서야 되겠는가.

양측은 오늘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국비 지원에 따른 규정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동안 지역 예술인들이 기울인 노력도 감안하는 가운데 양 기관이 한 발짝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스튜디오 설립 취지를 다시 새기면서 원만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커피 향 맡으며 책과 연애하는 곳, 편안하고도 충만한 경험을 공유하는 곳.”

작은 책방 안 옆서 크기만 한 칠판에 쓰여 있는 문구다. 대형 서점처럼 수많은 권의 책들이 뿔뿔하게 꽂힌 서가는 없다. 대신 책방 주인장이 엄선한 그리 많지 않은 책들이 탁자나 벽면에 가지런하게 놓여 있다. 주로 지역 작가들이 펴낸 신간과 전라도 문화, 생태·환경, 마을·교육 공동체 등을 주제로 한 책들이다.

동네 책방

방문자들은 맘에 드는 책을 고른 후 의자에 편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 내용을 살펴보고 구매한다. 주인장과 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자리한 동네 책방 ‘숨’의 따뜻한 풍경이다.

5년여 전부터 ‘북 카페’와 도서관을 운영하던 안석·이진숙 부부는 유독 광주·전남에만 작은 동네 책방이 없다는 데에 자극을 받아 지난해 12월 동네 책방 문을 열었다. 충북 괴산의 가정식 서점 ‘숲 속 작은 책방’과 경남 통영의 ‘봄네 책방’ 등 세 색깔이 뚜렷한 동네 책방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3대를 이어 온 향토 서점이 문을 닫

고 대형 서점조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전국 각지에 특색 있는 소규모 동네 책방이 하나 둘 문을 여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곳 ‘숨’에서 산 ‘서점은 죽지 않는다’(시대의 창 펴냄)를 읽으며 다소나마 의문을 풀 수 있었다.

‘중이책의 미래를 짊어진 서점 장인들의 분투기’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일본 각지에서 서점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미래상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은 “어떤 책을

몇 권 팔았다 해도 사실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책 한 권의 무게가 훨씬 무겁다”면서

서 “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작은 서점이 전국에 1000곳만 있어도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연간 독서량은 8.4권(광주)과 5.2권(전남)으로 전국 평균(9.1권)을 밑돌았다.

열악한 독서문화 풍토 속에서 광주 ‘숨’을 비롯한 전국의 개성적인 작은 동네 책방들이 책과의 만남을 즐기는 ‘문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6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8005>	경 영 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2-4931>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2-9600>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년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